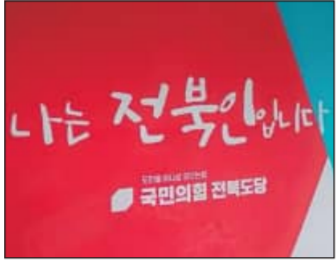


도지사 경선 '식사비 대납' 일파만파 안호영 "이원택 재감찰해야" 경선 중단 촉구

국힘도당 "후보 낼 자격 없다"
민주당 경선 정면 비판
계파·이중жат대 강력 비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잇따른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의원의 주류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계파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금품향응 제공 의혹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의원과 자당 청년 위원들과 저녁 식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 한



다"면서 "정체례의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같은 편이나 아니냐를 따져 계보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제명, 이원택 의원은 경선에 문제가 없다며 신속하게 감쌌다"고 성토했다. 전북도당은 "전북도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당으로서 전북도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이어 김슬지 고발

주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휩싸인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된데 이어 당시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슬지 전북도의원도 경찰에 함께 고발당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슬지 도의원(비례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이 예비후보의 주류·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모 매체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명과 식사를 한 후 비용을 직접 결제하지 않고 타인이 대납했다"



김슬지 도의원 는 내용의 의혹을 보도했는데 해당 식사 자리에는 김 도의원이 동석했고 당시 식사비 일부를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도의원은 "참석자들끼리 모두 회비를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걸려서 당일 결제 안 됐고 며칠 후 간담회 등에 쓰는 의회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원택 예비후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고발됐는데 특히 해당 의회 카드에 모 위원장 법인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확인되고 있다. /장정철 기자

대납 해명 신빙성 의문 제기
"간담회 주도 여부 진술 엇갈려"
중앙당 재감찰·경선 중단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는 8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재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납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와 관련된

식사비 대납사건에 대한 감찰을 실시, 무혐의 처리를 했고, 이 후보도 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그는 "이원택 의원은 SNS 게시물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청년간담회가 자신이 요청한 자리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도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당원은 '이 의원이 요청한 자리로 전해 들었다'는 언론인 인터뷰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의 측근인 김슬지 도의원이 청년들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면서 '이원택 의원이 청년들과 같이 소

통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간담회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공식 해명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당시 참석 청년들은 식사 후 저녁 8시경 이 의원과 셀카를 찍었고, 단체 사진도 함께 찍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식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한 추가적 사실들이 청년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만큼, 중앙당은 즉시 재감찰을 실시하고, 재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박영선 前 장관 9일 김관영 지사가 전북을 방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전북대 피지컬ai랩 실증랩을 방문해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이수진 "잼버리 시설 활용 '절차 실종'...행정 기본 무너져"

이 의원, 조례 이행·보고체계 부재 지적
공론화·사전협의 전면 재검토 촉구



이수진 의원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운영 및 활용 방향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답변, 자료요구 답변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이행과 보고체계, 사전협의 등 기본 절차가 정리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 방향 논의가 진행돼 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당시 운영본부로 활용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주체와 운영방향이 명확히 정리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요구 답변에 따르면 조례 이행 내역은 없었고, 도지사 보고·결재 문서도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교육청 이관 관련 내부 검토 자료 역시 공문 2건만 제출돼 정책 결정 절차가 충

분히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질의하자, 소관부서 책임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이미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간담회나 관계자 협의만으로는 공론화 과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도정질문 답변에서 전북도는, 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새로운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어 진행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힌 반면, 교육청은 접근성 문제, 재정 부담, 건축물 용도의 적합성 문제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

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업 추진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 연구용역에서도 국제교육원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개선, 접근성 확보, 재정 부담 완화,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 용역보고서에서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려면 건축물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용도변경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북도는, 교육청이 국제교육원 활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용도 변경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라며, 결국 핵심 전제조건인 용도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논의가 진행돼 온 정황이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를 종합하면 조례 이행, 보고체계,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정리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실질적 공론화와 용도변경 협의 등 기본 전제 충족없이 방향이 설정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떤 기관이 맡느냐가 아니라 정책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냐의 문제"라며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용도변경 등 전제조

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 운영과 기능 전환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근거와 절차,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2026
2027
진안 방문의 해

전북자치도와 충남 150만의 생명수
23년이라는 진안군민의 노력과 시간이 담겨있습니다

잊지마세요! 진안용담호
함께 불러주세요! 진안용담호

진안고원
JINAN GOWON

전북도, 직불금 5천억 투입...농가 소득 안정 강화

기본형·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쌀·조사료 등 단가상향 지원 친환경·경관보전 직불 병행 추진 공익 5월말 친환경 6월말까지 접수

전북도는 2026년 총 5,081억 원 규모의 주요 농업 직불금 사업을 투입해 농가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등 정세 불안 등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3,30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략작물직불제는 1,38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의 핵심 제도로,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21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수급조절용 벼 ha당 500만 원, 옥수수·깨 150만 원, 하계

조사료 550만 원으로 단가를 상향하고, 알팔파·옥수수(250만 원), 수수(240만 원) 등을 신규 포함했다. 하계 조사료는 도장려금 포함 시 ha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논 기준 무농약 75만 원, 유기 95만 원, 유기지속 57만 원을 지원하며, 유기농업 육성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도는 정부 직불금 외에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논농업 환경보전(ha당 13만 원), 밭농업 직불제(ha당 7만 원) 등 보완 지원을 추진해 농가 소득을 보다 촘촘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30일까지, 전략작물직불제 동계 4월 24일~하계 5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e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직불금 확대 개편은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본경선 일정 변경

도지사 경선과 겹쳐 하루 연기 11~12일 ARS 방식 경선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본경선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 10일부터 11일까지 이를 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1일부터 12일까지 하루 씩 연기됐다.

이번 일정 변경은 기초단체장 본경선 일정(4.10~11)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일정(4.8~10) 마지막 날인 10일과 겹치는 관계에 따라 안

정적인 경선 운영을 위한 조치다.

본경선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반영한 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결선 일정은 20일부터 21일까지 변동 없이 기존 계획대로 유지된다. 결선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구에 한해 실시된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관리를 통해 도민과 당원 뜻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김성수 예비후보 "전북 정치구조 바꿔야" 민주당 비판

"새만금 실체 없는 공약 정치" 김지사 사안 "권력 책임 부재" 윤준병 위원장 사퇴 공개 촉구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을 독점해온 민주당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도민의 선택, 정책, 책임을 잇아간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의 부재와 관련해 군산 보결선거에서의 전략공천과 도지사 선거에서 인물의 역량이 아닌 '리안'이 선택 기

준이 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 부재에 대해 "새만금을 외치지만 실질적 산업용지조자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아니라 실체 없는 공약 정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책임 구조의 무너짐을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김관영 지사 대리비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에게는 정치 생명을 걸고 책임을 묻지만, 권력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을 통제하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치권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지적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전북을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북타임스>

라 책임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도당위원장직 사퇴가 도민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사람

정동영 주최 'AI전략포럼' 규제·인재 유출 싶어

규제 엇박자 "산업현장 발목"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AI 전략포럼은 AI 강국으로 나아가길 비전과 희망의 도화선"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즌3] 피지컬 AI 프런티어 강국 신기술 조찬포럼'에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AI는 '위기'였다. AI전략포럼에서 카이스트조차 GPU가 단 한 대도 없는 열악한 인프라 현실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정 의원과 최형두의원, 이철규의원, 정진욱의원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회평가원이 주관했다.

정 의원은 "절실한 목소리가 닿아 작년 추경에서 '국가 GPU 인프라 확충' 1조 8천억 원, '피지컬 AI 실증사업' 1조 원 등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예산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맞춘 '똑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AI 전환(AI Transformation)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용순 중기부 실장은 "부처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지컬 AI 원천기술 보급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 모델△제조공정 자동화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 도입하고,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이나 대규모 구조 개선 시, 피지컬 AI 공장 레이아웃을 모의실험



정동영 의원

할 수 있는 '모두의 AI 공장장' 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계 현장의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변형원 종근당 전무는 "피지컬 AI 강국 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처 간 '규제 엇박자'다"고 꼬집었다. 변 전무 "제약 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며, "로봇이 약을 제조했을 때 책임 소재와 품질을 통제할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기술을 도입해놓고 규제에 가로막혀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조기원 서울대학교 로보틱스 연구소장은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현실을 짚었다. 조 연구소장은 "정부가 아무리 피지컬 AI 세계 1위를 외쳐도, 지금 한국의 최고 인재들은 전부 의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인재들이 과감히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연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리턴 투 RI(Return to Research Institute)'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 더블티 대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제조 현장의 분위기를 장벽으로 지목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뛰어난 AI 솔루션을 무료로 도입해 주겠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도전적인 기술'이라며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RE100 실행과제 구체화 에너지정책 분과 첫 회의

기업 애로 해소 협의체 운영 검토 지역 소득모델 발굴·수용성 제고 분과회의·포럼 통해 정책 연계

전북도가 RE100 이행 확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 과제 구체화에 나섰다.

도는 9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제1차 에너지정책 분과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 기반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기업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RE100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정철 기자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모델 마련 의견수렴 ▲RE100 지원협의체 운영 논의 ▲정책분과 추진계획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주요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이 지역 소득 창출과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소득모델 발굴과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으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RE100 지원협의체 운영 계획도 점검됐다.

도는 앞으로 분과별 정기회의와 포럼을 통해 지역 에너지 현안을 지속 발굴하고, 정책 반영과 사업화 성과 창출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스타 공무원'과 선거 스포츠 콘텐츠 협업

군산시청 박지수 주무관과 협력 투표참여·정책선거 메시지 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청 소속 '스타 공무원' 박지수 주무관과 협업해 제작한 선거 홍보 스포츠 콘텐츠를 공식 SNS 채널 등에 본격적으로 게시한다고 밝혔다.

박지수 주무관은 스포츠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로, 특히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군산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투표 시 유의사항' 영상이 누적 조회수 610만회를 기록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될 영상은 ▲투표참여 독려 ▲정책선거 홍보 ▲투표소 질서 훼손행위 방지라는 세 가지 큰 주제를 담고 있다.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선



군산시청 박지수 주무관이 출연한 누적 조회수 610만회의 21대 대선 '투표 시 유의사항' 홍보영상 <군산시 인스타그램>

거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는 전북선관위 홍보과 직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아이디어 회의

와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획안 작성, 그리고 박지수 주무관의 열정적인 연기와 재치 있는 입담이 결합하면서 영상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영상이 제9회 지방선거를 모두가 즐기는 아름다운 축제로 승화시키고, 다양한 연령

층의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영상 게시를 시작으로 선거일까지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함께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

환경을 위한 실천, 작은것부터 시작하세요!

- 엘리베이터 이용대신 계단 사용하기
- 퇴근시, PC 등 사용하지 않는 전원끄기
- 불필요한 메일 삭제하기

전주시 2026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대상'

안정적인 세수 확보 체계적인 세정 운영 '최고'

전주시가 전북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에 수상했다. 대상 수상은 안정적 세수 확보·체계적 세정 운영에 최고 수준 평가다.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과 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세수 추계 정확도 △세무조사 실적 △체납액 정리 △납세 편의 시책 등 다수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시는 △지방세 징수율 및 증

감률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실적 △체납자 채권 확보 및 징수 활동 △합리적인 지방 세정 운영 및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등 전반적인 세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인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그리고 세수 추계 정확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세입 확충을 위해 △정기 징수율 1% 향상 추진 △강력한 징수 활동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세정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아이 백일상·돌상 무료 대여

매월 선착순 신청 가능 4박 5일 동안 무료 이용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아이 야육 가정 대상으로 '전주아이사랑 백일상·돌상 대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전주지역 출생아 중 백일(생후 2~4개월) 또는 돌(생후 11~13개월) 등 영아 가정이다. 무료지원은 상처림 테이블과 전통 소품, 아동 의상 등으로 구성된 백일상·돌상 세트가 4박 5일간 무

료로 대여된다. 대여 물품들은 사용 후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거쳐 재사용되고 있으며 의상은 전문업체를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지원 희망 가정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장남감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매월 초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아동 의상 대여 시에는 세탁비 1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영양 교육·체험형 신체활동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 지원

전주시보건소가 아동들의 비만예방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9일 "놀이형 비만관리 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건강보험연구원 정규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아동 8~9세와 7~8세에서

과체중 이상 또는 비만 유병률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23년 비만 진료 아동·청소년 중 50.2%가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 만성질환 중 1개 이상의 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보건소는 아동·청소년기 비만이 만성질환 유병률을 높이고 성인기 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판단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을 결정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놀이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현재 총 3개 기관을 모집해 기관별 주 1회, 12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균형 잡힌 식습관과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

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전·후 비만도(인바디) 검사와 건강 습관 평가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참여 희망 기관은 전주시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헌법·인권함양' 특별교육 실시

기동대원 240여명 대상 실제 현장 사례 중심 교육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은 9일 기동대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헌법과 인권 함양" 주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기동대원들의 기본권 보호 의식을 내재화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빙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박사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현장 보호방안 인권행동강령의 이해 등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기동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동대원들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청사 별관 이전 완료

34개 과 배치 행정기능 안정적 개편

전주시청사 별관 내 총 34개 과와 스카이라운지, 강당(240석) 등의 배치를 완료하며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별관 이전은 행정 공간을 보다 빠

르고 합리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주시청사 별관은 연면적 1만4616㎡ 규모 지하 5층~지상 15층 건물로,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약 290억원 규모의 사업을 약 2년 만에 완료했다. 이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한 결과물이다. 시는 사무실 외 1층·2층·14층·15층 공용공간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를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남은 공용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효율적인 청사 운영과 시민 편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보완·발전' 약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주기적 회의 통한 처우개선 기대

전주시는 9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 위한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추진사항 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 제4기 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위원장에 김관우 및 부위원장에 전길배, 위원회 11명(당연직 1명, 위촉 10명) 등이 선출됐다. 현재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46명에 이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 급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사 1호봉은 2백23만원 수준이다. 특히 전주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매년 복지카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수교육비로 1인당 5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에게 한해 처우개선비로 5년차 미만 대상자에게는 매월 12만원과 이상이면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도 있다. 또 전주시는 사회복지사동아리 활동비를 위해 1년 10개 동아리의 동아리활동비 지원으로 올해 총 8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주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관한 제도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이지나 주사보는 "전주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주기적인 위원회회의를 개최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전주시 익산 왕궁에 '전주한지' 뿌리 내리

익산 왕궁면 일대 국산 닳나무 6000여주 식재

전북지방환경청과 전주시는 10일 익산 왕궁면 일대에 국산 닳나무 6000여 주를 식재했다. 식재는 2024년 전북지방환경청-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익산시-신협중앙회가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의 이행 조

치다. 식재지로 제공되는 국유지 6339㎡(약 1900평)는 과거에 가축 분뇨가 배출됐던 부지였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닳나무 식재를 통해 토양의 생태적 회복과 공간 복원을 추진하고, 전주시는 전주문화재단을 통한 닳나무 식재·관리·활용으로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한지 산업에 국산 원료

공급을 확대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특히 2024년 사업 초기에 식재한 2400주의 닳나무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첫 수확 될 닳나무는 협약에 따라 전주시가 전량 구매해 전주 한지의 주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해당 구매대금을 닳나무 관리 비용으로 재집행하고, 이 과정

에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과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한지 산업의 정통성 확보와 현대적 계승을 위한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아프리카 대양누가병원과 의료 협력 MOU 체결

글로벌 의료네트워크 확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아프리카 말라위의 대양누가병원(Daeyang Luke Hospital)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의료 환경 개선 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은 전북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축적한 의료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학교육 및 연구 협력 △전문 의료 인력 교류 △환자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현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발전 계획 '말라위 2063'에 발맞춰 전북대병원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현지에 접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대양누가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아프리카 말라위의 대양누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의료 환경 개선 위한 협력에 나섰다. <사진=전북대병원> 양하수 부원장과 전북대병원의 특별한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황 부원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부

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전북대병원에서 인턴을, 남원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친 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현재 아프리카 현지에서 현지 의사로 활동하며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제2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 황 부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말라위 대양누가병원은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 불리는 말라위 린트롱에 위치한 핵심 의료기관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하수 부원장은 "인턴 시절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며 수련했던 친정 같은 전북대병원과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북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역량이 말라위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실질적인 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용품 구매 시기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는 최근 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구매 시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지차체 및 소방서 관계자를 사칭한 뒤, '안전점검 대비 소방용품 비치'를 빌미로 접근해 가짜 유통업체를 알선하고 특정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을 대비해 리튬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안내하

며 특정 업체를 연결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정부지원금, 환급 등을 언급하며 통장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러한 시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안내를 통해 "소방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통한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이나 환급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제출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농협은행 '오투그란데 뉴퍼스트' 준공 이끌어

시공사 부도 위기 속 지역 주거 안정 전안... 상생금융 실천

익산시 남중동의 '오투그란데 뉴퍼스트' 아파트가 시공사 부도 위기 속에서도 끝내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 준공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준공은 사업 중단 위기 상황에서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지자체, 보증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달 13일 사용승인을 받은 오투그란데 뉴퍼스트는 대지면적 13,740㎡, 연면적 45,806㎡ 규모의 지상 3개동, 총 298세대로 조성됐으며 제일건설의 부도로 지난 2024년 12월 공사가 중단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 우려가 커졌지만 민·관·금융 협의체가 구성되며 사업 정상화가 추진됐다.

제일건설은 공사대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준공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이었으나 농협은행이 사업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공사 중단 직후 중도금 대출 유예로 입주 예정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고, 민원과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며 사업장 운영의 신뢰도를 회복했다.

또 중도금대출 추가지원과 이자 유예, 금리인하, 잔금대출 선제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조치를 통해 공정을 회복과 공사 재개에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회생 절차 중인 건설사가 부도사업장을 직접 준공한 사례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농협은행의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위험 조정, 협력업체 및 지자체와의 긴밀

한 공조가 이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농협은행 김성훈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이번 준공은 지역경제와 입주 예정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금융의 협력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책임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투그란데 뉴퍼스트 준공은 협력업체 연쇄 피해방지, 지역 건설산업 신뢰 회복, 안정적 주택 공급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민 기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순직 직원 희생 기려

'추모공간 제막식' 거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9일 전북 정읍 인재개발원 야외 추모공간에서 '전기안전기원 추모공간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막식은 전기안전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다 순직한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무재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남화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교육생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기원비 및 순직 직원 외벽식 현판 제막, 추모 묵념, 주요 말씀 전달 등의 순서로 엄숙히 진행됐다.

특히 장립 이래 전기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직원 10명의 이름

을 새긴 현판이 설치돼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남화영 사장은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새겨진 이름들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책임의 기록"이라며, "무 재해를 향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작은 위험요소까지 세심히 살피며, 안전이 일상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추모공간 조성을 계기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안전문화 확산과 무재해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레전드 50+' 참여기업 모집

지역특화 프로젝트 오는 15일까지 신청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한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인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산업에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중

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을 지원하는 1.0 프로젝트 △농생명바이오 및 탄소융복합소재 산업을 지원하는 2.0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1.0 프로젝트'는 총 5억2천만 원 규모로 약 17개사를 지원하며, 기술지원과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지원은 최대 3천만원, 사업화지원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신청할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 프로젝트'는 이번이 1차 모집으로, 총 2억4682만원 규모이며 약 7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1.0과 동일한 프로그램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기술지원은 최대 3500만원, 사업화지원은 최대 1천만원까지, 패키지 신청 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15일 오후 6시가

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고문 및 제출서류는 RMS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전북테크노파크의 이규택 원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건설협회 전북도회 '제68회 정기총회' 성료

2026년 사업계획 등 총 3건 원안 의결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정기총회를 4월 9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는 총 3건의 부의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재철 회장은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과 공사 중단이 속출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부담 완화 및 제도적 뒷받침을 골자로한 대정부 건의를 본

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물량 창출, 적정공사비 확보, 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원 간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건설사의 실질적 일감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역량 있는 지역 업체들이 대형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건설협회 전북도회>

한편 회의에 앞서 협회는 범부법인 호남 조계선 변호사가 '장기간 공사정지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제로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과 분쟁조기 종식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

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정소민 기자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학술활동 협력

데이터연계 기반 공동연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4월 9일 두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공동연구 등 학술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 역량을 결합해 복지정책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은 △ 인적 자원 교류와 교육으로 상호전문성을 강화 △ 각각 보유한 정보를 범법 범위 내에서 공유하고

기관 운영 시설을 서로 제공 △ 공동정보를 활용한 정책 연구와 세미나 개최 △ 데이터 분석과 연구활동에 기반한 성과 공유 및 확산 등 데이터와 연구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두 기관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 최종심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654세대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 A+등급 획득

보광종합건설은 오늘 전주시 진북동 일원에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주택전시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총 65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341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39.59 84 121 등 소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시공을 맡은 보광종합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탄탄한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신뢰의 기업이다.

앞서 전주시에서만 6개 사업지를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하며 탄탄한 브랜드 프리미엄을 구축해 이번 원도심 중심에 들어서는 7번째 단지인 '골드클래스 시그니처'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다.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는 전주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한결음에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NC에이비, 이마트, 신중양시장 등 대형 쇼핑시설과 메가박스, CGV 등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어 편리

한 생활이 가능하고 인근에 객리단길과 한옥마을 등도 위치해 '다있는 중심생활'이 가능해진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진북초, 중앙초, 신흥중, 신흥고 등을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서신동과 중화산동 일대에 형성된 학원가도 가깝다.

여기에 KTX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순천완주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춰 시내외로 이동이 빠르고 편리하다. 향후 전주MICE 복합단지 등 주변 개발 계획도 안고 있어 미래까지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압도적인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남향 위주의 배치는 물론 세대당 .55대 수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230T로 강화했으며 탁 트인 조망을 선사하는 유리간대를 적용해 외관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프리미엄 아파트에 걸맞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된다.

단지내 실내 공프연습장, 스쿠린골프, 피트니스, GX룸을 비롯해 자녀들을 위한 실내놀이터, 맘카페, 돌봄센터, 도서관, 독서실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에게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보광종합건설>

차원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제공할 계획이었다.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낮춘 특별한 혜택도 제공된다. 계약자에게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입주 시점까지 이자부담을 없앴다.

아울러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 청약 및 세대별 제한이 없는 등 청약 조건도 자유롭다.

특히 신선했던 출산특례와 혼인특례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배제될 수 있고 부부간 청약도 가능해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

분양 관계자는 "전주에서 이미 6개 단지를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검증받은 골드클래스의 가치가 이번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며 "원도심의 완성된 생활 인프라와 도보 학세권은 물론 프리미엄 커뮤니티까지 더해져 지역내 실수요자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클래스 시그니처의 주택전시관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70-11번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유성동 예비후보 '전북형 삼품제 도입' 공약

독서·체육·문예로 구성 "지역체 갖춘 실제적 인성교육 강화할 것"

유성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역체를 갖춘 민주시민 양성과 실제적인 인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형 삼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인성교육 강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학생들의 인성 수준에 대해 우리 국민은 '높게'보다 '낮게' 인식하는 정도가 세 배 이상 높고, 자녀가 다닐 학교 선택 시 초·중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통계 결과를 근거로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국가교육회의 설문 결과 초·중·고에서 더 강화

돼야 할 교육 영역 1순위로 '인성교육(36.3%)'이 꼽혔던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전북형 삼품제'는 독서품, 체육품, 문예품으로 구성되며, 이를 학교급별 진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독서품은 독서 습관과 태도를 PASS/FAIL 형식으로 평가하며, 체육품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 보장 및 '1인 1스포츠 프로젝트' 완수 여건을 조성한다. 문예품은 기존 '1인 1악기 프로젝트'

를 확대한 개념으로, 매 학년 공연이나 전시회를 4회 이상 관람하도록 기준을 정한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형 삼품제를 진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학년별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고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행

13일부터 사전신청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고창반편여행'을 본격 추진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한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고창군을 방문한 관광객(정읍시, 부안군, 장성군, 영광군 제외)이 고창군 내 숙박·식음·체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체류형 관광 지원 정책이다.

환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원, 단체(2인 이상)는 최대 20만원, 가족은 최대 50만원, 청년은 최대 14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급금은 지역 내에서 유효해 12월 31일까지 재사용이 가능해



<사진=고창군>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기대된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고창반편여행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에 소비와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 관광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변산 '은빛 레이스'... 대통령기 요트대회 개막

11~15일까지 개최 총 430여 명 참가

부안군 변산반도의 푸른 바다를 가르는 은빛 물결의 향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사·도 대항 요트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선수 195명과 경기 운영 인력 및 지도자 230여 명 등 총 430여 명이 참가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요트 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게임' 출전권을 획득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태

극마크를 향한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요트경기는 11개 종목으로 1인승 딩기(오티미스트, ILCA 4, ILCA 6, ILCA 7), 2인승 딩기(420, 470), 스키프(49er), 윈드서핑(테크노293, IQFoil, RS:X), 카이트보딩(포물러카이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 일정은 11일 경기 수역 개방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하루에 1~3경기가 치러진다.

총 12경기로 5일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며, 15일 시상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우리 군을 찾아주시는 선수단과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준비



<사진=부안군>

해주시 요트협회 측에 감사드리며, 모든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후회 없는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전북교육청, 학폭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전주·완주에 일반 2곳 정읍에 맞춤형 1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기관 3곳을 신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가해학생 선도를 전담하는 일반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완주)과 성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기관은 기존 19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정된 기관에서 보호자와 함께 의무

적으로 상담 및 선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해학생 교육기관과 별도로, 도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전담 지원하는 전문기관 23곳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감이 지정한 총 45개 피·가해학생 전담 기관은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일선 시·군 지자체가 연계해 공동으로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들 4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협의회를 열고 상담 및 교육 인프라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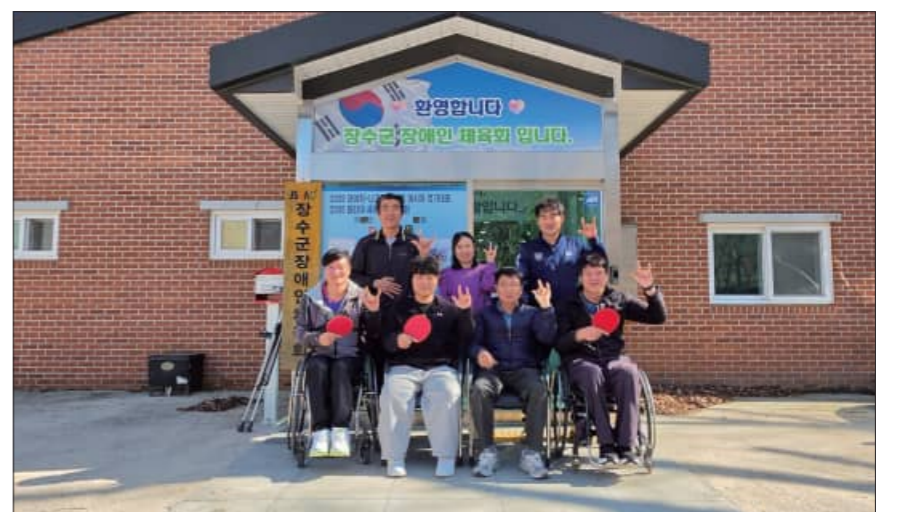
전북교육청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전담 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사진=전북교육청>

도내 상담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피·가해 학생 모두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장수군>

장수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 국대 2명 배출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 소속 황인준 선수가 2026년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박남수 지도자가 국가대표 코치로 선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장수군 장애인 체육의 경쟁력과 선수 육성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했고 지역 체육 위상 제고와 함께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황인준 선수는 오는 11월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선수촌에서 집중 훈련에 참여하며 기량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박남수 코치는 같은 기간 동안 전

국에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며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울러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은 황인준 선수와 박남수 코치 외에도 김준오 선수와 백영복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확보를 위해 국내외 대회에서 랭킹포인트 획득에 힘쓰고 있으며, 군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와 지도자가 부상 없이 훈련과 경기에 임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비오면 일단 감속

운전 중

빗길에선 20% 감속 <폭우땀 50%>

차간 안전거리 2배 이상 확보

낮에도 전조등 켜 차량 위치 안내

침수위험 지하도 등 진입금지

운전 전

와이퍼 정상 작동여부 점검

타이어 마모 살피고 공기압 10~15% 높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교통법규는 더 철저히!

정읍시, 수성1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00세대 모집

정읍시가 무주택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00세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36.54㎡(11평형) 총 2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3월 25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공유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해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다.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수성1 영구임대주택은 1994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빈집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대상자는 새 주택에 입주하기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기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평생학습 도시 익산 '전북시민대학' 4년 연속 선정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원하는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전북형 학습공동체 기반 구축을 목표로,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 등 고등교육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우석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취창업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강좌 20개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필수과정인 익산시 교육과정은 우석대와 함께 진행하며, 시민교육과 지역학(익산학) 등 3강좌가 개설돼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원광대 캠퍼스에서는 향과 색으로 만나는 뷰티풀 라이프 등 총 6개의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고,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에서는 '인공지능(AI)시대 생활속 정원의 의미와 가치' 강좌가 개설된다.

한국폴리텍대 캠퍼스에서는 세컨하우스 생활 속 응접과 배관 등 3개 강좌가 개설되며, 취창업산업 캠퍼스에서는 재직자 역량 강화 등 5개 강좌가 마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Green 지구로움 출발'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Green 지구로움 출발'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바다와 우리 △물 △자원순환 △에너지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총 2,000여 회의 교육을 운영하고,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기후탄핵대'와 '생태배움터'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험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환경 인식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강미래체험관을 단순 체험시설을 넘어 지역 기후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시설 확충

국비 6억 원 확보... 물류비 절감 등 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하 군산특송장)이 물동량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에 나선다.

군산특송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중국 전자상거래 소화물의 검사와 통관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시설로, 군산시 물류지원센터 내에 국비 18억 원을 투입해 X-ray 검색대, 컨베이어벨트, 동시구현 시스템 각 3기와 관독실 등을 갖추고

2024년 2월 정식 개장했다.

군산특송장은 개장 이후 처리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개장 1년여 만인 2025년 초부터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산시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장비 2기를 올해 하반기 중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특송 물류를 분산하고, 통관 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연간 약 185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군산항이 해상 특송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특송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9년까지 통관 장비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새만금국제공항, 항만인입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Sea-Air-Rail) 시스템'을 구축해 복합물류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가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군산항이 경쟁력 있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정상화' 소통

정현울 시장, 조합 만나 "농가 피해 없어야"

정현울 익산시장이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현울 시장은 9일 시장실에서 오동은 이사장을 비롯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원을 초청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행정이 조합원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말로 위탁 계약기간이 끝난 어양점은 현재까지 운영 방식을 두고 진통 중이다.

이로 인해 농가들이 판로를 걱정하거나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날 정 시장과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출하 농가와 시민 피해가 없는 직매장"이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 물건을 내놓는 농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고, 매장을 믿고 찾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정현울 시장은 9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원을 초청해 어양점 사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익산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이자 조합의 목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특히 정 시장은 행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설명했고, 조합 측도 행정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상황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

시와 조합 측은 앞으로 직매장 정상

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농민들의 팍팍함이 뻔 소중함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먹거리를 사는 것이 행정이 바라는 가장 큰 목표"라며 "시는 언제나 농민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백년대계' 그린다

20년 단위 기본전략 및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정읍시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등 지역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읍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9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과 용역수행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범정

의무 계획인 이번 용역은 정읍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이행체계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 기관인 취창업지원발전연구원 측은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분석, 2045년까지의 20년 단위 기본전략 수립, 2030년까지의 5년 단위 단기 추진계획 수립, 정읍형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이행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단순한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성과와 연동되는 구체적인 지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활력, 사회적 포용성,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읍형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이번 계획 수립은 우리 시가 당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읍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읍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중동발 '경제 불안' 차단 총력

비상경제 특별대응팀 물가 안정 상시 점검

중동 전쟁 지속으로 물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익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제 특별대응팀(TF)'을 가동해 주요 식자재와 생필품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비상경제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대응 체계를 일찌감치 구축했다.

민생물가안정팀과 석유가격안정화팀, 수출지원팀은 각각 주유소 가격 표시 준수 여부와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며 물가 상승 압박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객에게 익산다이어يوم 인센티브를 지급하

고, 매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홍보를 확대한다. 다가오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익산 서동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 축제장 먹거리 가격 안정에도 힘을 기울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 경제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가동한 비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달 말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단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역사체험형 콘텐츠 운영

내달 3일까지 시범 운영

군산시는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이하 '식량영단')에서 10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금·토·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역사체험형 콘텐츠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식량영단을 활용해, 기존의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스토리와 몰입감을 갖춘 체험형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시 운영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체험형 관광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군산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콘텐츠 소요 시간 및 난이도, 현장 안 내의 명확성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는 해설사와 운영 인력 등 총 4명을 배치해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체험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식량영단의 밀서'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근대 역사 공간 속에서 다양한 퍼즐과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보존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군산시>

정읍시, 팸투어 성료... 온라인 홍보 추진

15개국서 20명 참여

정읍시가 '2026 정읍 벚꽃축제' 기간에 맞춰 15개국 외국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 20명을 초청해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을 성황리에 마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관광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제작물(콘텐츠) 생산과 확산을 전제로 한 전략형 홍보 사업으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총 3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들의 세계적인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이달 한 달간 정읍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순차적으로 게시

할 예정이다.

답사 일정은 만개한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내장산국립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장금이파크 등 정읍의 핵심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류형 동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벚꽃축제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개막식에 참석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읍만이 가진 독보적인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외국인 유치 관광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협력

재해 취약분야 선제 대응

군산시가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9일 군산시청에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기존 관리·감독망이 미치지 어려웠던 소규모 건설현장, 축산업, 어업, 태양광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등 산업재해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행정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예방 전문성을 연계

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건설, 축산, 어업, 태양광 등 9개 분야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 점검과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어선·축산 등 업종별 점검과 군산시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계절근로자 382명 배치

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익산시가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대폭 확대해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9일 고도한농애(愛)세계유산센터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농번기 인력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익산시와 고용농가 관계자들은 낯선 곳으로 일하러 온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익산시는 베트남 타락성과의 협약(MOU)을 통해 선발된 계절근로자 382명을 지역 60여 농가에 배치한다.

이들은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7차에 걸쳐 입국을 마쳤으며,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베트남 타락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39명으로 시작한 지난해 200여 명이 이어, 올해 382명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역대 최대 인원을 농가에 배치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정현울 시장은 "현지 직접 선발을 통해 입국한 우수한 근로자들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조민규 후보 기자회견 반박

“모나용평 협약서는 법적 비공개 대상… 특혜연장도 사실무근”

고창군은 더불어민주당 조민규 후보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기자회견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9일 밝혔다.

조민규 후보는 “군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계약서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실시협약서는 민간기업의 투자 조건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군은 해당 자료를 이미 고창군 의회에 제출해 의정활동 목적의 검토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공공성 확보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잔금 연장, 고창군 귀책 아닌 외부 요인 반영한 합리적 조정”

조 후보 측은 잔금 납부기한이 고창군 귀책 사유로 연장된 것처럼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계약금(10%)과 중도금(10%)은 정상적으로 납부됐으며, 잔금(80%)에 대해서만 기한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다. 군은 인허가 절차 지연, 기상상황에 따른 부지 성토 지연, 반복적인 민원 등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 승인했다.

△“최대 3년 연장·PF 관련 주장, 협약 구조 일부만 해석한 것”

조 후보는 계약상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자금조달(PF)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협약 내용을 일부만 해석한 것이다. 실시협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본 사업은 일정 기간 내 착공 의무

가 있으며, 장기 지연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34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협약 해제·해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

△“30년 비밀유지 조항, 일반적 보호 장치…의뢰 검토 이미 완료”

조 후보가 제기한 “30년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고창군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의 투자정보, 금융구조 등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며,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해당 실시협약서는 군민의 대의 기관인 고창군의회에 이미 제출돼 검토가 이뤄진 사항으로, 공적 감시와 통제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제시, 지방세정 실적 ‘최우수상’ 수상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작년 대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는 2개 분야 14개 항목 등 지방세정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평가해 이뤄진다. 시는 세수추계 정확도,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한 연구개발 발굴,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취득세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작년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천1백만원을 확보했다.

최근열 세정과정은 “이번 전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2년 연속 수상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분들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들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맞춤 비료처방…농가 경영비 ↓

고창군이 맞춤형 비료사용 처방을 병행 추진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올해 공익직불제 점검 대상은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성송면, 대산면 등 5개 면 농경지 1320필지로, 최근 3년 이내 점검 필지를 제외한 후 무작위로 선정된다.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한다.

점검 결과 1차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직불금이 감액되지는 않으며, 2차 재검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종 3차 검사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군은 이와 함께 토양검정 기반 비료사용 처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고창군은 연간 약 5600건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작물별 적정 비료사용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관행적인 시비 방식보다 비료 사용량을 약 15~20% 절감할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오성동 소장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농업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토양검정과 비료사용처방서를 적극 활용해 비료사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구제역 발생 방지 총력 대응

청정지역 사수

부안군은 구제역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전남, 올해 경기인천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구제역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다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법정 1급 가축전염병으로 한 번 발생할 경우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3월 2번에 걸

친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을 통해 관내 소·돼지·염소 등 7만 1634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으며 주기적인 확인 검사를 통해 항체를 저조농가에 대한 농장별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27일 2일간 위도에서 10여농가 500여두의 염소 농가 대상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 도서지역에서의 접종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제역 발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에 대한 점진적인 접종 1급 가축전염병으로 한 번 발생할 경우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3월 2번에 걸

“에스비푸드 사업, 정상 추진 중… 계약 이행 능력 부정 말아야”

고창군은 조민규 후보가 제기한 “잔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고창군과 ㈜에스비푸드간 체결한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기산해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연체가 발생했을 때 연체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이며, 본 계약에 따른 잔금은 2024년 7

월 19일 최종적으로 납부됐다.

연체료는 계약과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리·관리되는 문제이며, 납부 지연을 근거로 “계약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계약 내용과 법령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에 더해 부채비율과 기업평가등급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참고지표일 뿐이며, 실제 계약이행 능력은 자금 조달 계획, 사업추진 의지, 계약 이행 경과, 설비투자 진행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무지표만을 근거로 해당 기업을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왜곡된 주장이다. 특히 해당기업은 고추종합유통센터 소유권 이전 이후인 2024년 11월 ‘고품질장 제조공정’ 관련 49억원

(VAT 별도)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0월 내부 철거, 2025년 12월 냉각탑 반입, 2026년 4월 현재 농축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등 설비투자도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구두계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과 집행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025년 12월30일 본사를 고창군으로 이전한 점 역시 사업추진 의지와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이행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기업 애로 개선 등 우수 권익과제 6건 선정

부안군은 지난 8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업 활동·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 애로 개선,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1·2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권익과제가 본선에 올랐다.

최종 심사 결과 주산면 김혜연 주무관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등록외국인 인구의 주민 인정 범위 확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안전총괄과 변조연주무관의 ‘군민안전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기계 범위 확대와 관광과 신승호 주무관의 ‘축제기간 한시영업신고와 의제 주류판매신고 통합 운영 개선’



부안군은 지난 8일 2026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안군>

이 밝혔다. 장려상은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무관의 ‘업종 변경 어업인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제외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혜인 주무관의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합리화, 자치행정

담당관 김기중 주무관의 ‘실용주의 및 행정 효율감 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권익과제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혁신 관광 스타트업과 ‘맞손’

김제시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스타트업들과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 및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관광기업과 함께 ‘2026 BETTER! 인구조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BETTER! (베터리)’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구를 충전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모델을 지역에 실증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에 앞서 참여기업과 김제시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는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식, 러닝, 자전거 등 관광분야 관심 테마를 공유하고, 지역 인프라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들을 직접 격려한 두일군 자치행정국장은 “김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갈 7개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19일까지 산학관 연계 사업 참여 대학기업 모집

김제시가 지역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관내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G-ROOT(김제에 뿌리내리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6년 산학관 연계 김제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G-ROOT)’에 참여할 도내 대학 1개소와 관내 기업 4~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권 대학에 재학 중

인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을 대상으로 하며, 김제시 전략산업(특장차, 식품 등)에 전문 기술교육과 직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관내 기업에서 인턴십을 거쳐 실제 채용과 지역특화비자(F-2-R) 취득까지 연계하는 ‘정주형 패키지’ 모델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유학생들이 김제시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대학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유학생 모집과 맞춤형 교육 운영을 전담하며, 참여 기업은 우수한 기술인력 매칭과 함께 인턴십 지원 및 지

역특화비자 추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희망 대학 및 기업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방문 또는 이메일(pso511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G-ROOT 프로젝트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관내 기업의 고용 역량을 결합해 외국인 인재를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 갈증을 해소하고 활력 넘치는 김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다자녀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전북 고창군이 3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환경 안정을 돕기 위해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각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8세 이하(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명의자여야 하며, 자

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한부모·다문화·조손가구도 동일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6~11인승 국산 패밀리카 구매비용의 10%,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이동 편의 증진과 양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내달 8일까지 치유프로그램 참여 농장 모집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병)는 치유농장과 사회서비스 유관기관을 연계한 2026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농장을 오는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노인, 우울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치유농장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참여농장 4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500만원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체험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치유농장 등으로 참여농장은 사회서비스 기관과 협력해 6회기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치유효과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역량 있는 농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바가지 없는 춘향제’ 물가안정 총력전

물가안정·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 축제 앞두고 가격표시 집중 점검 착한가격업소·환경개선 지원 확대

남원시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96회 춘향제 기간 방문객 급증에 따른 바가지요금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기간 중 물가 상승과 가격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인회 및 판매부스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가격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모든 판매부스에 가격 외부 게시를 의무화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특히 음식 부스는 판매가격을 사전

책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외식업 정기총회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친절 서비스 제공과 가격 안정 참여를 유도하고, 추어요리협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숙박업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숙박요금 사전 고시제’를 운영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도·시군 합동점검과 축제 기간 집중점검을 병행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주요 상권 122개 업체의 45개 품목에 대해 매주 현장 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도 마련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3천8백만원 규모의 영업 물품과 방역·전기 안전 점검을 지원하며, 6개 업소에는 7천만원 규모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68개 업소를 선정해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상가 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만 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수급 불안을 방지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농협 및 알뜰주유소 가격 인상 자제와 매장서 금지 등 공적 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전한 가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시설공단-전북체육회, 체육 활성 ‘맞손’

생활체육 프로그램 공동 발굴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사진=완주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민과 도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체육복지 향상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한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체육지도자·강사 등 전문인력 교류 및 지원 △취약계층 대상

체육 프로그램 개발 △체육 관련 교육 및 인성 공동 개최 △체육사업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이 2026년부터 신규위탁 운영 중인 수영장 시설과 도체육회의 전문 인력지원이 연계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중동 사태 피해기업에 지방세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징수유예·분할고지 등 탄력 적용

완주군이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을 돕고자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신청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

해서도 기업의 자금 사정에 맞춰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시행해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는다.

아울러 피해 기업이 경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부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보류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기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납세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정세에서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대의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하천 막는 불법시설 ‘정조준’...전방위 단속

누락 지역 추가 점검 병행 안전신문고 신고 참여 독려

남원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국가·지방·소하천과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누락 지역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도 병행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하천 흐름을 막아 재해 위험을 키우는 불법 시설물이다. 계곡이나 하천에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가설시설물과 하천 구역 내 과실수 식재, 무단 영농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할 원하는 시민은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유형을 선택해 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 위치 정보와 하천·계곡명, 주변 지형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재해 위험이 큰 시설은 우선 제거하며, 적법 시설은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주유소 유가 안정 총력 고물가 대응 점검 강화

남원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 따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안정화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점검반은 지난달 23일 첫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밀착 점검을 펼쳤다. 특히 사안에 따라 남원시와 석유관리원, 세무서, 경찰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석유 제품 최고가격 고시 준수 여부 △가격표시제 위반 △유통 표시가격 일치 여부 △유류세 인하분 적기 반영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불법 석유 유통 여부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관내 주유소 52개소 전체에 공문을 발송해 유가 안정화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투명한 유통 가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5월 시범 가동

146억 투입 수변 관광 거점 조성 카누·패들보드 등 체험시설 구축

완주군이 구이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정식 개관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사업비 146억 원(국비 7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124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지난해 준공 이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보완과 장비 확충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센터는 부지 10,585㎡, 연 면적 499.15㎡(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탈의실·샤워실·교육실을, 외부에는 계류장·편의공간·주차장(12면)을 갖추었다.

센터는 올해 5월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4월~10월(화~일요일, 09:00~18:00) 정식 운영되며, 이용객들은 카누, 카약,



<사진=완주군>

패들보드, 수상자전거 등의 장비를 이용해 수변 레저를 즐길 수 있다.

군은 개관 준비의 핵심 단계로,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문 운영을 책임질 민간위탁 운영 주체를 공개 모집한다. 4월 중 적격자 심의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은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기는 전국 최고의 수상레포츠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 센터 개관을 계기로 모악산, 도리미술관, 숲테마박물관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 ‘구이권역 체류형 관광 벨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차담회 형식으로 ‘소통’ 행보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눈길’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개소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완주군 삼봉1로 8-4 6층 선거사무소 ‘완주대오의’ 캠프에서 진행됐으며, 별도의 공식 행사없이 차담회 형식으로 방문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완주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며 “군정에 도움이 될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제안해 달라”며 소중함의 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남유권자연합, 장애인연합, 노동계 등 각계 단체들이 참석해 지지선언을 했으며, 노인회와 어린이집연합회, 예술계, 해병전우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 관계자들도 방문해 힘을 보탰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김재현 부의장을 비롯해 심부진·최광호·유이수 군의원이 참석했으며, 송지용 전 전북도 의장과 권창환·박재완 전 도의원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김상식·정준원 전 완주군의원과 신승기·이완근·이진영 예비후보 등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소방서 “1분기 구급수요 증가” 중증환자 증가세 ‘뚜렷’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2026년 1분기 구급활동 분석 결과, 구급출동과 이송환자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증환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구급출동은 총 2,727건, 이송환자는 1,5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 3.5% 증가한 수치다.

또한 1일 평균 출동 및 이송 건수 역시 증가해 구급대의 상시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환자는 총 347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전체 이송환자의 약 21.9%를 차지했다. 이는 이송환자 5명 중 1명이 중증환자인 수준이다. 질환별로는 △심혈관질환 121명(최다 비중) △뇌혈관질환 105명 △중증외상 94명 △심정지 2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정지는 12.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급활동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약 60% 이상 집중됐으며, 특히 오전 8시~10시 시간대가 최대 출동 피크로 나타났다.

완주소방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집중 시간대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해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송환자의 약 86%가 30분 이내 병원에 도착했으며, 환자인계 역시 약 86%가 20분 이내 완료되는 등 전반적인 이송체계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완주소방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급 운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발효체험’ 해외 교육여행단 발길 이어져

대만·유럽 등 400여명 방문 학교 단위 방문 꾸준히 증가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발효 체험 관광 프로그램에 해외 교육여행단 방문이 이어지면서 순창 발효문화에 대한 외국인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대만을 중심으로 한 해외 교육여행단과 유럽 방문단 등 총 4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이 순창 발효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단위 교육여행 형태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체험형 발효관광 콘텐츠에 대한 호응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만 타이중 사립문화고 급중학교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순창을 방문해 발효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순창 발효관광 콘텐츠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이어지



<사진=순창군>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교육여행단은 발효테마파크 탐방과 고추장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통 장류와 발효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체험 중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 교육형 관광 콘텐츠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노르웨이 교육여행

단 방문도 이어지는 등 방문 국가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발효를 주제로 한 순창만의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 해외 교육기관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과수 화상병 ‘원천 봉쇄’ 나서

과수 화상병 차단 3단계 방제 완료

순창군이 과수 화상병의 관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 전·후 3단계 필수 방제 약제 공급을 완료했다.

이번 약제 지원 대상은 관내 사과 재배 34농가, 배 재배 7농가 등 총 41농가(24.3ha)이며,군은 기존 상승과 함께 병원균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제때 살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방제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개화 전)에는 병원균의 초기 밀도를 낮추기 위해 동제와 항생제 계통의 혼합 약제를 살포하고, 2차(개화)와

3차(개화기 이후)에는 미생물제제를 연속 투입해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인다.

과수 화상병은 잎과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 세균성 병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데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 일단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순창군은 연내 4차례(5월·6월·7월·10월) 정기 예찰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별 방제 기록지 작성을 유도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에코스마트팜 ‘속도’ 페열 활용 에너지 집중 논의

남원시는 미래형 농업모델 구축을 위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7일 시청에서 관계기관 및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실습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연계사업의 실제 설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 및 기반시설 구축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관로 설치 방안, 단지 내 도로·용수·배수 등 기반시설 설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 단지 운영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설계 및 공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고병원성 시 대응 예방교육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최근 산서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원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인근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인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하천변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가금농가 방문 자제 △계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폐사한 가금류 및 야생조류 사체 발견 시 접촉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장수군은 이상 증상 발생 시 감염병 대응팀(063-350-2661) 또는 질병관리청(1339) 문의를 당부하였으며 경로당·마을회관 내 예방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읍, 2026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본격 가동

임실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2026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댄스 강좌를 시작으로 본격 개강했다고 밝혔다.

첫 수업부터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올해 프로그램의 문을 열었다.

올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총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난해보다 운영 폭이 확대됐다.

특히 아로마테라피, 합창, 바이올린, 서예 등 신규 4개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프로그램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고 이에 주민들의 선택권도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기존 프로그램들도 꾸준한 관심속에서 균형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임실읍은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4개 강좌를 포함한 총 13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취미와 관심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읍은 주민편의를 위해 프로그램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응급실 공백 최소화 총력 이경영 권한대행 현장 점검

진안군은 지난 8일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진안군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행정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에 따른 응급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응급실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 상황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특히 현장에서 응급실 운영 여건과 비상근무 편성 계획, 인력 운영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실 근무 공중보건의사 5명 중 4명이 4월 9일자로 복무를 마친에 따라,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등 전문의와 응급실 전담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순환 당직 체계를 가동해 응급실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외과 전문의를 응급실 진료과장으로 초빙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고, 아울러 응급실 당직에 참여한 전문의들이 외래 진료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응급진료 공백은 물론 외래 이용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민 기자

덕유산, 무단 침입 강력 법적 조치

전문 산악단체 불법 산행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봄철 산행 시즌을 맞아 덕유산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불법 산행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문 지식을 갖춘 산악 단체들이 훈련을 빌미로 금지 구역을 넘나들면서, 시설 관리 업체가 이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나섰다.

최근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시설 관리 업체에 따르면, 해외 원정 훈련 등을 목적으로 스키장 슬로프와 비법정 탐방로에 무단 침입한 A산악연맹(10명)과 B대학 산악부(17명) 등 전문 산악 단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공원사무소의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 관리 업체 측

은 불법 산행 근절을 위해 사법 기관을 통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적발된 이들은 현재 '자연공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전문 산악인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유지를 무단 점거하는 행태는 올바른 등산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영업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나 슬로프 무단 진입은 인명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는 지반이 약해져 실족이나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의 접근조차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또한, 희귀

식물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전문 등산 인들일수록 규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규 탐방로 이용만이 덕유산의 자연을 지키고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는 향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단속을 위해 드론 등 입체적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전문 산악 단체들의 불법 산행이 근절될 수 있기를 주목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경제 '활기'

첫 지급액 대비 사용률 83% 지난 2월 26일 첫 지급 이후 약 23억원 소비 완료

장수군은 지난 2월 26일 첫 지급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분석한 결과 총 지급액 약 28억원 중 약 23억원이 사용돼 83%의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 군민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장수읍이 34%, 그 외 6개 면이 66%의 사용률을 나타냈다. 또 업

종별로는 음식점·카페(22%), 5대 업종(16%), 농협(8%), 주유소(6%), 편의점(3%), 미용실 등 기타 업종(45%)순으로 사용됐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식품판매점이 5억1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

장수군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2일 기준 676개소에서 지난해 말 기준 854개소로 178개소 증가했고 가전제품 대리점, 카페, 미용실 등 신규 창업 점포가 17개소나 생겼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높은 사용률은 물론이고 지역화폐가 맹점 및 신규 창업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감소세 제동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달 30일에 1월분과 3월분 기본소득이 동시에 지급됨에 따라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아 단기간 내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애 농산임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다"며 "높은 사용률과 지역화폐가맹점 및 신규점포 증가,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재택 의료서비스' 본격 시행

방문 진료·간호 서비스 제공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

무주군이 오는 13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 의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 의료서비스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기적인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 상태 평가와 복약,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내 지역 보건의료기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에서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무주군민이며, 통합지원회의와 의료진의 진단을 거쳐 선정된다.



무주군이 오는 13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무주군>

이용 비용은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 외의 추가 방문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신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하

는 재택의료는 단순한 방문 진료를 넘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 보건 모델"이라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2026 옥정호 벚꽃축제' 11일 개막

이번 주말 벚꽃 만개 초절정 김용빈 등 트롯대세 개막공연

2026년 천만관광 임실 실현의 출발점이 될 옥정호 벚꽃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임실군은 '옥정호, 다시 꽃피는 임실'을 주제로 자연과 문화, 체험과 먹거리를 주제로 자연과 문화, 체험과 먹거리가 아우러진 복합형 관광축제를 선보이며 국내 정상급 트롯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들이 준비됐다.

'2026 옥정호 벚꽃 가요제'는 지역 최고의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가요제는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최

연 △재즈밴드 공연 △케이팝 댄스 공연 △7080 댄스파티 △인실릴링농악 △개막식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축하공연에는 미스터트롯3 최중우승자 김용빈, 미스터트롯4 3위 홍성윤, 미스터트롯3 TOP6 남승민, 미스터트롯4 TOP16 채윤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한층 더 뜨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둘째날인 12일에는 △펍크밴드 공연 △타악 퍼포먼스 공연 △2026 옥정호 벚꽃가요제가 진행된다.

'2026 옥정호 벚꽃 가요제'는 지역 최고의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가요제는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최

고의 가창력을 겨루는 무대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장 곳곳에서는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운영된다.

경성 의상 대어 체험을 통해 레트로 감성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으며, 벚꽃배경 인생네컷, 출렁다리 앞 버스킹과 마술쇼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먹거리 또한 풍성하다. 총 13개의 부스와 푸드트럭에서는 임실치즈를 활용한 치즈볼, 치즈빵 등 특화간식은 물론 닭강정, 불초밥 등 다양한 메뉴가 제공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

건설교통과 장광일 주무관 안전재난과 박진용 주무관 수상

장수군은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군민 만족도 향상과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 사무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자는 마일리지 누적 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으로는 △건설교통과 장광일 주무관(최우수), △안전재난과 박진용 주무관(우수)이 선정됐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우 부군수는 "이번 시상상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수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N장미축제' 향토음식개발 실습교육 실시

임실만의 특색 있는 맛 선사

임실군은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2026 임실N장미축제'를 앞두고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방문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향토음식개발 실습교육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장 및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진행됐다. 특히 국제요리학원 정정희 원장을 초빙하여 임실만의 특색 있는 맛을 선전 보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가격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여 '다시 찾

고 싶은 임실'의 이미지 각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고유의 맛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바가지요금 없는 정직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임실'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실습 메뉴로는 임실의 특산물을 활용한 △치즈감자칩 △다슬기탕 △치즈감자크로켓 △치즈우유김밥 △치즈보리비빔밥 △도토리묵밥 등 25종의 다채로운 음식을 구성하여 실천 조리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기후 안심 농업 환경' 조성 주력

기후 위기 극복 위한 시스템 구축 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 지원

무주군이 불확실한 기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2억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과수원에 방상팬과 미세살수 장치, 지주시설 등의 재해 예방 시설을 지원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직접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저온 피해 예방약제 공급에도 적극 힘써 기후 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와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경영비 부담 역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태

계 변화와 병해충 확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과와 복숭아 농가에는 고미교란제를 지원해 개화기 '눈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랭지 채소 농가에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공급해 농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무주군은 기후, 작목, 시설 맞춤형 시스템을 적용한 '기후 안심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사후 복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농업 현장의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 양육자 심리상담 운영

임실군 드림스타트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건강 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양육 코칭을 넘어 양육자가 일상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개인적인 심리 문제(우울, 불안 등)까지 있게 다루는 전인적 상담 서비스로 기획되었다.

많은 양육자가 자녀를 키우며 부딪히는 한계가 본인의 심리적 상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담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전문 상담사와 1:1 매칭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상담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며 "심리상담이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보듬는 부모님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한다"며 "양육자들이 겪는 심리적 무게를 함께 나누고, 모든 가정의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 입암면 입춘대길복지관, 취약계층 이불세탁 봉사

정읍시 입암면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입춘대길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4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봉사자 1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이불을 직접 수거한 뒤 세탁과 건조 작업을 거쳐 다시 전달하는 등 전 과정에 정성을 다했다.

특히 겨울철 동안 사용한 두꺼운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함으로써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봄철을 맞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에도 기여했다.

정재병 면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수험생 현장 응원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현정, 이하 완주꿈드림)가 최근 전주전중학교에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간식을 지원하며 현장 응원에 나섰다.

시험 당일 전달한 따뜻한 도시락과 '겉바속찐' 버터떡 간식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시험 시간 동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완주꿈드림은 매년 검정고시를 두 달 앞둔 2월부터 '꿈드림 멘토단'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공백 해소와 고득점 취득을 돕기 위한 1:1 맞춤형 학습지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멘토단에 참여한 청소년 9명 전원이 이번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군산교회, 12년째 이어진 장학금 전달

학생 46명 총 3,840만원 지원 누적 장학금 4억 3천만원

군산시는 9일 남군산교회(담임 목사 이신사)가 관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46명에게 총 3,84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남군산교회는 2015년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2명의 학생에게 약 4억 3,46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장학금은 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12명(각 50만 원) △중학생 18명(각 80만 원) △대학생 12명(각 100만 원) △대학생 4명(각 150만 원)에게 각각 지급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떡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종기 원로목사는 "이 장학금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군산시청 전경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 금산면, 청년회와 원평천 환경정화 활동 실시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금산면 청년회와 함께 원평천 일원에서 '깨끗한 금산면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미정 면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금산면 청년회 회원 등 20여 명이 힘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지역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자발적인 환경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장관 예담엔지니어링 대표, 순창군에 1,004만원 기탁

천사(1004)의 마음으로 응원

순창군은 9일 (주)예담엔지니어링 김장관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을 기탁하며 순창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전했다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주)예담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는 김장관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4년에 순창군의 사회복

지시설에 2천 5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기증했고, 올해는 천사(1004)의 마음으로 순창군 발전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을 기탁해 그 진정성을 더했다.

김장관 대표는 "순창군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군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순창군과 동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어르신 생신 상 차려드리기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민호)에서는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숙자)와 함께 9일 산서면 왕곡마을회관에서 85세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썬크스테라빵과 생신 상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왕곡 마을회관에서 85세 장애인 어르신의 생신상을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올해 산서면을 시작으로 관내 어르신 14명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군, 'JB 희망의 공부방' 제 229호 개소

JB 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JB 희망의 공부방' 제 229호가 9일 완주군 가족센터 다다룸 구이점에 새롭게 동지를 틀며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따뜻한 배움터 마련에 힘을 보탤다.

이번 공부방은 지난 2월 구이에 새로 문을 연 정담센터에 다가온 이 이전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공간으로, 학습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내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한

층 강화하는 핵심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열린 개관식에는 송중택 완주군 사회복지과장과 김성두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공부방의 시작을 축하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대한어머니회익산지회, 딸기잼 만들기 행사

익산시는 9일 새대한어머니회익산지회(회장 문희)가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대한어머니회익산지회 회원 70여 명은 지난 8일부터 딸기 2,500kg를 직접 손질하고, 조리를 거쳐 정성껏 딸기잼을 만들었다. 딸기잼 만들기 행사는 새대한어머니회익산지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7년째 이어오

고 있는 나눔 사업이다. 수익금은 전액 청소년 장학사업과 독거노인 밀반찬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새대한어머니회익산지회는 장학사업과 밀반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알림

▲ 최의호 전북타임스 기자
차남 최경빈 군 결혼
(신부 이동형 장녀 이소연 양)

장소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메리포엠웨딩홀 B1 메이에르홀
일자 :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00분

△ 피로연
장소 : 무주 천지가든
일자 :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해빙기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 할까요?



낙석위험지역



공사장부근



옹벽, 축대 주변

해빙기에는 주변에 공사장, 축대 등 위험시설을 주의깊게 살피는것이 대형 재난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독자투고

“오늘 드신 감기약, 운전대 잡기 전 한 번만 더 확인해주세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운전'(drug driving)이라고 하면 마약류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치료목적의 처방약이나 감기약도 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약물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졌으나,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분류한 386개 성분에 따르면 운전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품으로는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기침·감기약(에페드린염산염 등), 알레르기 약(항히스타민제 등), 최면진정제(졸피뎀, 메다졸람, 프로포폴 등) 등이 있다. 안전 운전을 위한 실천 수칙으로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반드시 '운전해도 괜찮은지' 약사나 의사에게 확인해야 하고 약 복용 후 평소보다 졸음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절대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운전자는 약물 복용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약물 운전은 나쁜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마 감기약 때문에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은 특정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지 기준이 된다고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가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전주특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한상원

오늘의시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 / 박노해

제 몸을 때려 울리는 종은 스스로 소리를 듣고자 귀를 만들지 않는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 온 목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 집을 짓지 않는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들, 한번은 다 바치고 돌아와 새근 새근 숨쉬는 상처를 품고

지금 시린 눈빛으로 말없이 앞을 뚫어 보지만 우리는 과거를 내세워 오늘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흥과 뿌리를 보살피지만 스스로 꽃이 되고 과실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내일이면 모두가 웃으며 오실 길을 지금 우리 젖은 얼굴로 걸어 갈 뿐이다
오늘,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
참 좋은 날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낮부끄러운 전북 정치, '무공천' 요구받는 민주당의 현주소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식사비 대납 의혹... 잇단 잡음 도민의 자존심은 누가 지키나

전북의 정치가 다시 한번 '참혹한 봄'을 지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한창이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찬 정책 대결이 아니라 '고발'과 '사죄 요구', 그리고 '석연찮은 판정'뿐이다. 급기야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로부터 "전북도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무공천하라"는 뼈아픈 일갈까지 듣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전북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 불거진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은 전북 정치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들과의 식사 및 음주 비용 72만 원 중 일부를 제3자가 대납했다는 혐의로 경찰 고발이 접수된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 후보 측은 "본인 식사비는 직접 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경선을 불과 하루 앞두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도민들에게 준 실망감은 회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앙당 선관위가 안호영 후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

제없음'으로 치부하며 경선을 강행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안 후보가 지적한 "석연찮은 무혐의"는 단순한 경쟁자의 투정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도민들의 집단적 불신을 대변한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조국 대표가 던진 메시지는 전북 민심을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조 대표는 최근 김관영 지사가 '김품 제공' 혐의로 제명된 사태와 이원택 후보의 의혹을 묶어, 민주당을 향해 "전북도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심지어 "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물려치한 일"이라며 전북지사 무공천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평소 '지민비조'로 불릴 만큼 돈독했던 두 정당 사이에서 이런 거친 언사가 오간다는 것은, 현재 전북 내 민주당의 위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반증한다. 민주당은 그간 호남에서 '일당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누려왔다. 하지만 그 권력의 그늘에서 자라난 것은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과 도덕적 불감증이었다. 김관영 지사의 제명과 이원택 후보의 고발 건은 그 오만함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경선 일정만을 고집하고 있다. 상대 당인 조국혁신당이 도민의 자존심을 대변해 '사죄'를 요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민주당에게 전북은 무엇인가. 아무리 흠결 있는 후보를 내세워도, 아무리 석연찮은 과정으로 공천을 해도 여차피 찍어줄 '표밭'에 불과한가. 조국 대표의 요구대로 사죄를 하든, 안호영 후보의 주장대로 철저한 재검찰을 하든, 민주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도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경선 투표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겠지만, 이번 사태로 상처 입은 전북의 자존심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은 단순히 '민주당 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을 대표할 만한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를 원한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일갈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사회해야 할 때 침묵하고, 책임져야 할 때 핑수로 일관하는 정당은 언젠가 민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

정책은 없고 의혹만 남은 전북도지사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막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선거판은 이미 깊은 진흙탕에 빠져들었다. 경선 직전 불거진 '대리운전비 제공' 논란과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폭로와 반박이 난무하는 혼탁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3자 구도였던 경선은 김관영 후보의 제명으로 양자 대결로 재편됐지만, 구도 단순화가 곧바로 경쟁의 질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원택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 결과 "개인 비위는 없다"고 판단하며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당사자들은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경쟁 후보는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사실관계보다 공방의 수위에 더 노출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발성 논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이어져 온 각종 의혹과 갈등이 누적되며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시민사회까지 가세한 장외 공방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고,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북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당의 도덕성과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더욱이 법원이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과 경선 중단 가처분을 모두 기각

하면서, 탈락 후보의 향후 행보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은 본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사흘간의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저녁이면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만, 그 결과가 누구의 승리로 귀결되든 지금과 같은 진흙탕 경선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장이어야 한다. 상대를 흡입하는 데 몰두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계기로 내부 검증과 윤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유권자 앞에 보다 성숙한 정치 문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 화 재 열 전

정음 피향정
(보물 제289호)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정음시 태인면 태창리 102-2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말린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8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장수지국 010-8626-6049	장수지국 010-8626-6049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순창지국 010-5312-7293	순창지국 010-5312-7293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전북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전북 타임스
정확한 뉴스, 빠른 소식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올해 다채로운 공연 쏟아진다”

국비 2억4,300만원 확보

올해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예술이 펼쳐질 예정이다.

(재)완주문화재단·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사장 유희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공연예술지역유통 공모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2억 3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가유산청 주관 '2026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총 2억 4천3백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먼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 공연예술지역유통 공모사업' 선정작인 연극 '체어, 테이블, 체어', 인형극 '손 없는 색시', 어린이 클래식 음악극 '콩짜공짜 뮤지 트레인'과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어린이 전통뮤지컬 '배꼽잡는 슬로우', 미디어융합공연 'it SHOW',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등 총 7개 작품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8월 '완주인형극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군민들의 높은 인형극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특히 춘천인형극제와의 협력으로 엄선된 8개 단체의 우수작과 완주 지역 인형극단의 작품을 다채롭게 엮어낸 '작은 인형극 축제'로 꾸며진다.

이 밖에도 전시, 체험,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완주의 여름을 풍성하게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을 통해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2024년 창단한 '완주어린이취타대'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교육에 가야금, 해금 등 국악기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국악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미 여러 축제로부터 공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완주어린이취타대는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단원을 모집 중이며, 참여 희망자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완주문화재단·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유희태 이사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받아 삼아 더 많은 완주군민이 일상 속에서 고품격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새로운 **농협** 대한민국 농협

농촌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정읍시지부 지부장 김순기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황토현농협 조합장 유형기
칠보농협 조합장 권순준	태인농협 조합장 한상곤	신태인농협 조합장 황휘중
삼골농협 조합장 허수중	정읍원예농협 조합장 이대건	순정축협 조합장 남상국